

## 폐암표지자로서 CYFRA 21-1의 유용성

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내과학교실 박현덕 정현식 이승세

서론: 폐암에 대한 종양 표지자로서는 암태아성 항원(carcinoembryonic antigen, CEA) 상피세포암항원(squamous cell carcinoma antigen, SCC Ag)과 신경원 특이성 에놀라제(neuronal specific enolase, NSE)등이 있으나, CYFRA 21-1은 최근에 발견된 종양 표지자로서 비소세포성 폐암 특히 상피세포암에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방법 및 결과: 환자는 강북삼성병원에 폐암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환자의 혈청에서 CEA, SCC Ag, NSE, CYFRA 21-1을 측정하였다. 전체 환자 수는 115명이었으며 이중 남자가 87명(75.7%), 여자가 28(24.3%)명이었다. 연령분포는 31세부터 83세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61.9세였다. 조직학적인 분류로는 선암이 40예, 상피세포암이 37예, 소세포암이 25예 순이었다. 전체 폐암 환자에서 종양 표지자의 양성율은 CYFRA 21-1이 51.3%, NSE이 29.7%, CEA 47.3% SCC Ag이 26.4%였다. 조직형에 따른 종양표지자의 양성율은 소세포암에서 NSE가 양성인 경우 68%로서 선암과 상피세포암의 22%와 20%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며, CYFRA 21-1의 양성율은 선암에서 63%, 상피세포암에서 54% 소세포암에서 40%였다. 병기에 따른 CYFRA 21-1의 평균치는 T1: 2.3ng/ml T2: 7.5ng/ml T3: 5.5ng/ml T4: 11.9ng/ml로서 병소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CYFRA 21-1의 양성율도 T1: 16.67% T2: 48.39% T3: 61.54% T4: 54.69%로서 병기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고 임파선의 전이와 타장기로의 전이 유무에 따른 CYFRA 21-1 농도의 변화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폐암에서의 종양 표지자는 CYFRA 21-1이 가장 높은 양성율을 보이며,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CYFRA 21-1의 농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고, 조직학적인 아형에 따라서는 선암의 경우가 상피세포암의 경우보다 높게 나와 다른 기관에서의 보고와 상의한 결과를 보였다.

## 소세포성 폐암에서 나쁜 예후 인자로서의 피부근염

한림의대 내과, 해부병리과<sup>1</sup>

이형석,<sup>\*</sup> 장대영, 서영일, 이재명, 안진석, 박혜림<sup>1</sup>

피부근염은 대칭적인 근위근 약화와 특징적인 피부 병변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특히 고령 환자에서 발생할 경우는 악성 종양과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피부근염과 흔히 연관된 악성 종양은 난소암, 유방암, 흑색종, 대장암, 폐암 등이다. 이러한 악성 종양과 피부근염이 동반될 경우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졌으므로, 고령의 피부근염 환자에서 악성 종양에 대한 적극적인 선별 검사가 강조되고 있다. 연자 등은 피부근염을 동반한 소세포성 폐암 환자에서 전격적이 간전이에 의해 급격하게 질병이 악화된 예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증례: 62세 남자가 3월 전부터 발생한 상하지의 근력 약화와 피부 병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에서 상안검, 입 주위, 경부 하측의 흉부, 손 관절 등에 박탈성 홍반이 관찰되었고 상하지의 근위근에 근력 2-3도의 대칭적인 근력 감소를 보였다. 생화학 검사 상 CK 446 IU/L, LDH 1,133 IU/L, SGOT 63 IU/L로 근 효소가 증가되었다. 피부근염으로 진단되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후 피부 병변과 근위근 약화의 증상은 호전되었다. 악성 종양의 선별 검사를 위하여 시행한 흉부 단순 촬영 및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우측 폐 종괴 및 다발성 종격동 림프절 종대 소견을 보였다. 종격동 내시경 생검에서 미분화 악성 세포가 관찰되었다. 입원 중 급작스런 황달과 간종대 소견을 보여 시행한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간 전체에 다발성 미세 결절 소견을 보였다. 경피적 간 생검 결과, 소세포성 폐암의 전격성 간 전이로 확진되었다. 고식적인 EP 복합 항암요법에도 불구하고 간 전이의 급격한 진행으로 내원 두달 만에 사망하였다.